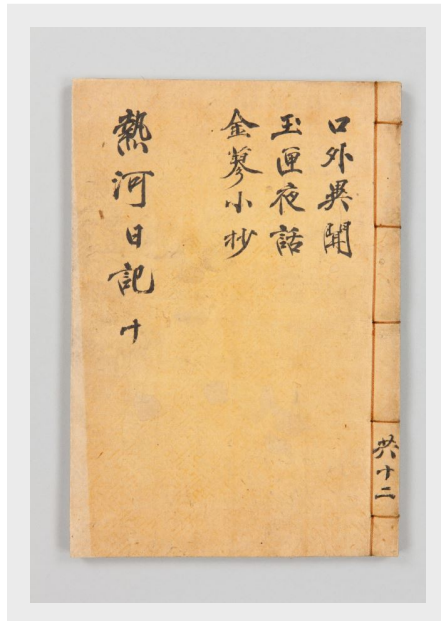


열하일기[熱河日記]

박지원(朴趾源)의 눈으로 본 열하의 모습



1 개요

『열하일기』는 연암(燕巖) 박지원이 1780년(정조 4) 5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중국 연경(燕京, 북경)을 거쳐 열하(熱河)까지 여행하며 감상을 적은 기행문이다. 박지원은 사행기간 동안의 견문을 일기체 형식으로 서술하여 1783년(정조 7) 완성하였다. 조선후기 사대부들이 청을 오랑캐의 나라로 무시하기도 했지만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청의 선진 문물을 자세히 기록하여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지니려고 하였다.

2 열하까지의 여정

박지원은 1780년(정조 4) 청 건륭제(乾隆帝)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삼종형 박명원(朴明源)이 진하 겸 사은정사(進賀兼謝恩正使)로 임명되자 그의 자제군관 신분으로 함께 청을 다녀왔다. 박지원은 5월 25일 한양을 출발하여 박천, 의주를 거쳐 6월 24일 압록강을 건너 구련성(九連城)에 도착하였다. 국경에 이르자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였다. 사람의 경우 성명·거주·연령, 수염이나 흉터의 여부, 키가 큰지 작은지를 적었고, 말은 털의 색깔을 적었다. 구종(驅從, 관원을 모시고 따라다니는 하인)들의 경우 소지품 검사를 위해 옷옷을 풀어 헤치거나 바지를 훑어

보았으며 비장(裨將)이나 역관(譯官)은 행장을 풀어보게 하였다. 그래서 국경 주변에는 이불 보따리와 옷 꾸러미가 강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가족 상자와 종이함이 풀밭에 뒹굴기도 하였다. [관련사료](#)

박지원은 압록강을 건넌 지 15일 만에 요양(遼陽)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7월 10일 십리하(十里河)를 출발하여 판교보(板橋堡), 장성점(長盛店), 사하보(沙河堡)를 거쳐 심양(瀋陽)에 이르렀다. 박지원은 심양에서 하루를 묵은 뒤 거류하(巨流河)를 거쳐 14일 소흑산(小黑山)에 이르러 하루를 묵었다. 7월 15일에 신광녕(新廣寧)을 거쳐 산해관(山海關)까지 9일이 걸렸으며, 산해관에서 연경까지는 11일이 걸렸다. 압록강에서 연경까지의 거리는 약 2,300여 리로 긴 여정이었다.

8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연경에서 열하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열하는 황제가 임시로 머무는 곳인 행재소(行在所)가 있는 지역으로, 연경에서 동북쪽으로 420리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지역은 강희제(康熙帝) 이후 황제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오는 피서지였다. 박지원이 연경을 거쳐 열하에 온 이유는 봄에 건륭제(乾隆帝)가 남방을 순행하였다가 이곳으로 피서를 왔기 때문이다. [관련사료](#) 열하로 가는 길에는 부사 서장관과 역관 3명, 비장 4명, 하인 등 모두 74명이 동행했다. 가는 길은 녹록치 않았다. 비가 자주 와 시간이 지체되어 사신단 일행은 하룻밤에 여덟 번이나 강을 건너며 서두르기도 하였다. 말이 더위에 쓰러지고, 일행 역시 더위를 먹었다. 열하까지의 길은 매우 힘든 여정이었다. [관련사료](#)

3 박지원이 본 청의 세상

귀국 후 박지원은 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그는 열하까지의 여정, 여행에서 인상 깊었던 점, 가지각색의 체험 등을 정리하여 『열하일기』 총 26권을 저술하였다.

먼저 여정의 구간을 날짜별로 서술하였다. 박지원은 의주에서 연경까지를 도강록(渡江錄), 성경잡지(盛京雜識), 일신수필(駢訊隨筆), 관내정사(關內程史)로 나누어 기록했으며, 연경에서 열하까지의 여정은 막북행정록(漠北行程錄), 태학유관록(太學留館錄), 환연도중록(還燕道中錄)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도강록(渡江錄)은 6월 24일에서 7월 9일까지의 기록으로 압록강에서 요양(遼陽)에 이르는 노정이다. 14일간의 상황을 날짜별로 매일 서술했으며, 「구요동기(舊遼東記)」, 「요동백탑기(遼東白塔記)」, 「관제묘기(關帝廟記)」, 「광우사기(廣祐寺記)」의 세목을 두어 요동의 역사와 요동성의 구성, 주변 사찰 등 박지원이 보고 들은 것을 서술하였다.

성경잡지(盛京雜識)는 7월 10일에서 14일까지 5일간의 기록이다. 날짜별 여정과 함께 속재필담(粟齋筆談), 상루필담(商樓筆談), 고동록(古董錄), 성경가람기(盛京伽藍記), 산천기략(山川記略)의 세목을 두었다. 일신수필(駢訊隨筆)은 7월 15일에서 23일까지 9일간의 기록으로, 신광녕(新廣寧)에서 산해관(山海關)까지의 여정이 서술되었다. 세목으로는 북진묘기(北鎮廟記), 거제(車制), 희대(戲臺), 시사(市肆), 점사(店舍), 교량(橋梁), 강녀묘기(姜女廟記), 장대기(將臺記), 산해관기(山海關記) 등이 있다. 여기에서 박지원은 조선 유학자들의 화이론과 춘추대의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이용후생하는 중국인들의 자세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관내정사(關內程史)는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의 기록으로 산해관에서 연경까지의 여정이 서술되었다. 여기에는 열상화보(冽上畵譜), 이제묘기(夷齊廟記), 난하범주기(灤河泛舟記), 석호석기(射虎石記), 호질(虎叱), 호질후지(虎叱後識) 등이 서술되었다. 그 중 〈호질〉의 중심 내용은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척하는 선비인 북곽선생(北郭先生)이

범에 의해 신랄하게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범은 만주족을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이 수천 년 동안 중국을 지배했던 한족의 문화와 역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박지원은 만주족이 지배하는 중국의 현실을 <호질>을 통해 풍자하였다.

막북행정록(漠北行程錄)은 8월 5일에서 9일까지의 기록으로, 연경에서 열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다. 조선 사행단의 축하를 받아야 할 건륭제가 피서지인 열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행단은 곧바로 연경을 떠나 열하로 출발하였다. 태학유관록(太學留館錄)은 8월 9일에서 14일까지 6일 동안의 기록이다. 박지원은 열하에 도착하여 태학(太學)에 머물면서 윤가전(尹嘉銓), 기풍액(奇豐額), 적성(赤成) 등 청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태학유관록에는 그들과 나눈 중국의 문물, 지전설(地轉說), 월세계(月世界) 등에 대한 내용들이 서술되었다. 환연도중록(還燕道中錄)은 8월 15일에서 20일까지의 기록으로 열하에서 연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다.

다음으로 박지원은 주제별로 항목을 정해 청 학자들과의 교류내용과 정책에 대한 논평, 경험한 것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열하일기』에 담았다. 망양록(忘羊錄)에서는 청 학자들과 음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심세편(審勢篇)에서는 조선사람의 다섯 가지 허망된 일[五妄]과 중국 선비들의 세 가지 어려운 일[三難] 등에 대해 상호 토론하였다. 혹정필담(鵠汀筆談)에서는 윤가전(尹嘉銓)과 천문 및 역법, 서학(西學) 등에 관해 얘기하였고, 찰십룬포(札什倫布), 반선시말(班禪始末), 황교문답(黃敎問答)에서는 열하에서 체험한 반선(班禪)에 대한 내용과 건륭제의 반선 정책, 청과 주변 이민족이 지닌 각종 종교에 대해 정리하였다.

피서록(避暑錄)에서는 열하에 머물면서 청 학자들과 조선과 중국의 역대 시문(詩文)에 대해 논평한 내용을 담았으며, 동란섭필(銅蘭涉筆)에서는 동란재(銅蘭齋)에 머물 때 쓴 가락(歌樂), 향시(鄉試), 서적(書籍), 양금(洋琴) 등에 대한 잡록(雜錄)을 모아 정리하였다. 옥갑야화(玉匣夜話)에서는 명의 역관인 홍순언(洪純諺), 연경의 갑부 정세태(鄭世泰), 조선의 변승업(卞承業) 등 역관(譯官)들의 일화를 소개했으며, 금료소초(金蓼小抄)에서는 중국 의술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다.

환희기(幻戲記)에서는 청 마술가의 연기를 구경한 소감을, 행재잡록(行在雜錄)에서는 행재소에 머물면서 견문한 내용과 청이 조선에 취한 군사, 외교 정책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산장잡기(山莊雜記)에서는 열하에서 거주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일화들을 정리했고, 구외이문(口外異聞)에서는 박지원이 들은 60여 종의 고사들을 정리하였다.

황도기략(黃圖紀略)에서는 황성구문(皇城九門), 서관(西館), 금오교(金鰲橋), 경화도(瓊華島), 토원산(兔園山), 만수산(萬壽山), 태화전(太和殿), 체인각(體仁閣), 문화전(文華殿), 문연각(文淵閣), 무영전(武英殿), 경천주(擎天柱), 어구(御廡), 오문(午門), 묘사(廟社) 등 연경을 대표하는 시설물에 대해 기록하였다. 그 밖에 알성퇴술(謁聖退述)에서는 순천부학(順天府學), 태학(太學), 학사(學舍), 역대비(歷代碑), 명조진사제명비(明朝進士題名碑), 석고(石鼓), 문승상사(文丞相祠), 관상대(觀象臺), 시원(試院), 조선관(朝鮮館) 등의 항목을 두고 이들을 참관하면서 알게 된 견문들을 소개하였고, 양엽기(養葉記)에서는 박지원이 답사했던 사찰 및 주요 명소 20곳의 경치를 기술하였다.

4 『열하일기』에서 이용후생(利用厚生)을 논하다

박지원은 청을 여행하면서 당시 청의 문물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이를 선입견 없이 바라보려고 하였다. 그가 연행 도중 처음으로 접한 것은 책문이다. 책문 안에는 중국인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커다란 가옥과 반듯한 거리, 벽돌로 쌓은 담장, 수레, 책문의 규모나 시설에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박지원 스스로 견문이 좁아서 그런 것이라며 부처와 같은 혜안, 맹인의 선입견 없는 평등안(平等眼)으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면서도 이용후생의 관점에서 청의 문물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열하일기』에 기록하였다. 박지원은 탁자 위에 놓인 술잔이 1냥에서 10냥까지 그릇이 제각기 달라 손님이 4냥짜리 술을 청하면 4냥들이 잔으로 부어주는 것을 보고 그 간편함을 서술하였다. 아울러 물건의 가지런함, 제 곳에 놓인 소 외양간, 거름덩이도 이용후생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관련사료](#)

중국인의 수레제도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박지원은 중국의 태평차(太平車), 대차(大車), 독륜차(獨輪車) 등을 소개하면서 조선의 수레제도와 비교하였다. 그는 조선이 산과 계곡이 많아 수레를 쓰기에 적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레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 도로가 닳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이 재산이 풍족할 뿐 아니라 한 곳에 지체되지 않고 골고루 유통되고 있는 것이 모두 수레를 쓴 덕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박지원은 수레를 통한 유통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의 경우 전국적으로 수레를 이용하여 도로를 닳으면 물산이 원활하게 유통되어 백성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조선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는 지배층인 사대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며, 실용학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관련사료](#)

이외에도 박지원은 마을 내 우물의 모습, 물을 끄는 방법, 기와를 잇는 방법, 벽돌을 사용하는 데 이로운 점, 가마제도 등 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용후생의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도 청의 선진문물제도 가운데 백성들의 생활에 이로운 것 같은 것은 빨리 배워서 받아들이자고 하였다.

박지원은 청의 문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박지원은 연경에서 열하를 여행하는 도중 청의 학자, 상인,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을 통해 박지원은 과거제도, 관혼상제, 의관제도 등 조선과 청의 문화에 대해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전족과 망건 등 청의 문화를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5 『열하일기』의 의의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당시 조선 학자들이 청을 오랑캐로 비하하며 멸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지원은 청의 문물 및 제도, 정책, 조직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효용성과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열하일기』는 조선후기 실학(實學)에 관심이 많았던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혀졌다.

이러한 『열하일기』는 정조대 문체와 내용이 문제시되어 금서로 묵혀 있다가 1911년 조선광문회에서 활자본으로 출간되면서 다시 읽혀지기 시작하였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여러 종의 『열하일기』 필사본이 남아 있는데, 최근에 박지원의 아들 박종채(朴宗采)가 수정하고 보완한 『열하일기』가 발견되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